중국 封建大家庭에서의 女僕*
－《激流三部曲》을 중심으로

金仁喆**

목차

I. 序言
II. 封建大家庭의 女僕
   1. 비참한 삶과 죽음
   2. 주인과의 비극적인 사랑
   3. 주인과의 정식 결합
III. 結語

I. 序言

巴金(1904～ )은 어릴 때부터 하인들과 가까이 하기를 좋아했다. 그는 유년시절을 하인들 사이에서 생활하며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巴金은 《將軍集・序》에서 말하기를: "이 지식도 없고 교양도 모자란 사람들로부터. 나는 나의 생활태도를 얻었고 근본에 가까운 정의의 신앙을 얻었으며 정치하고 시인스런 성격을 얻었다. 그 생활태도, 신앙, 성격은 아직까지 남아있어 나와는 멀어질 수 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巴金은 또한 집안의 가마 준 老僕를 '자신의 두 번째 선생님'이라고 깊이 말하였다. 그는 老僕에 대해 "그는 이 집에서 누구보다 사회를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이 사회의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 그는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었으나, 사회를 중

* 이 논문은 2001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리지원에 의해서 연구됨.
**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영문여문학부 부교수.

1) 巴金， 《將軍集・序》: "這一群沒有知識、缺乏教養的人中間我得到了我的生活態度，我得到了那個近於原始的正義的信仰，我得到了爽朗的性格。…...那生活態度，那信仰，那性格還留下來，成為我不能分離的東西。", (《巴金全集》 제10권.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9년). 7쪽.
2) 我的第二個先生：巴金은 스스로 자신에게는 모두 3명의 선생이 있다고 했다. 첫 번째는 자신 의 어머니이고, 두 번째는 집안의 가마 준 老僕이며, 세 번째는 《半月》의 동인 吳先濤이다. 巴金은 이들들에게 그들의 생활경험을 배웠으며 자신의 사상을 확립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오하지 않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충실히 생활하였다. 3)라고 희고하였다. 가마꾼의 모습은 어린 바 annonces 하여금 가정 이외에 사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으며, 당시 사회의 어두운 면을 알게 해주었다.

어린 바 annonces 지저분하고 추운 마을에서 가마꾼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고충을 듣거나, 문간방에서 문지기들의 철망스런 탄식을 듣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그들과 도와야겠다고 명세하고 했다. 그리고 이 명세는 자연스럽게 반 후생으로 발전하였다.

바 annonces의 유년시절의 이런 생활경험은 그의 작품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작품 중 하인들의 비참한 생활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은 《激流三部曲》 4)이라고 할 수 있다. 《激流三部曲》의 배경인 高씨 집은 四川 成都의 4대가 같이 살고 있는 관료지주계급의 가정이다. 이 집에는 40여명에 달하는 남녀 하인들이 각각 그들의 주인이 시중들로 살고 있었다. 그들의 출신은 아주 빈곤하였으며 냉혹하고 무정한 현실이 항상 그들과 같이하고 있었다. 특히 하인들은 주인에게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으며 재산의 일부분으로 여겨졌다. 주인들은 하인들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친구에게 선사하고 强姦하였으며 심지어는 병든 하녀를 죽게 방치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激流三部曲》의 高씨 가정에 살고 있는 하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당시 封建大家庭에서의 그들의 비참한 인생을 조명하여 작가가 의도한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封建大家庭의 女僕

《激流三部曲》의 封建大家庭 高씨 집 하녀들은, 그녀들이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비참한 인생을 살거나 외로이 죽어간 하녀이며, 여기에는 魏兒, 喜兒, 倩兒가 해당된다. 둘째는 주인과 극적인 사랑을 나누는 하녀인데, 高씨 집 셋째 도령 覺慧와 사랑을 나눈 鴨鳯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은 주인과 정식으로 결혼하는 하녀이며, 翠環이 이에 해당된다.

3) 巴金〈我的幾個先生〉: 在這個公館裏他比誰也知道社會，而且受到這個社會不公平的待遇。他活着也只是痛苦地捱日子。但是他並不憎恨社會，他還保持着一個堅定的信仰： 忠實地生活。, 《巴金全集》 제13권,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0년, 16-17쪽.
4) 《激流三部曲》: 《家》, 《春》, 《秋》, 총 3부로 이루어짐.
1. 비참한 삶과 죽음

1) 주인에게 물건 취급받은 하녀—婉兒

婉兒는 高씨 집 三房의 하녀이며, 鳴鳳과 같은 위치에 처해있는 하녀이다. 婉兒는 그녀의 일각에 대해 수려한 용모의 소유자이며, 鳴鳳보다 한 살 많다. 高家의 娉鳳을 친구 漸樂山에게 선사하려하자 鳴鳳은 강론에 뛰어들어 자살한다. 鳴鳳이 죽자 高家의 娉鳳대신婉兒를 漸樂山에게 첨은 것으로 보인다. 鳴鳳과婉兒는 일찍이 "우리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내대"라며 농담까지 했던 사이이다. 누구도 高家의 야생을 면접에 놓지 비극적 운명을 맞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婉兒를 鳴鳳과 비교해 보면, 婉兒는 鳴鳳에 비해 반항적 성격이 약하다. 婉兒는 漸樂山의 점에 보내질 때 비록 몸부림치며 통곡하였지만 결국에는 복종하였다. 《春》에서 巴金은 婉兒가 渐樂山의 점에서 겪은 스모를 자세히 묘사하였고, 이는 그녀가 남서의 생일 때 고씨집에 와서 아가씨들에게 자신의 비참한 생활을 토로하는 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

婉兒은 응행해, 수완도 많은 여자아. 그녀가 사람을 피해하기 시작하면 정말 대단해. 그녀는 욕을 하는데 어떤 저속한 욕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을 먹지 않는 악사들 앞에서 보상받간 기생하기도 해. 내 생처는 모두 풍요인이 되어서 난어가. 그는 사람을 먹을 편만 아니라 물기도 해. 난 생처에 정말 어린 괴물들은 본 적이 없어. 그가 기름 때에는 너를 보매처럼 여기고, 시간을 내어 죽 이는 것과 글 쓸 것도 가르쳐 줄. 그가 화를 낼 때에는 정말 사람도 아니야. 급수마. 때로는 몸이 알 선 해. 내 아가의 향처도 그가 황등이에 따라 생긴 거야! 비록 자국도 그가 몰은 자국이야. 어떤 때에는 정말 황당스러워 죽겠어. 그러나, 왕당해도 소용없어. 그들은 사람이 많아.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 부인. 손자…… 모두 한 동족이야. 나는 찬족도 없이 외로이 혼자야."

5) 三房: 高家의 첫째아들. 즉 覺慧의 첫째 숙부. 克明과 娉鳳 내외.
6) 鳴鳳: 娉鳳은 주인 覺慧와 비극적인 사랑을 나누는 하녀로서, 高씨 가정의 최고통치자인 高양 감에 의해 친구에게 첨로 보내지려하자 강론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하녀이다(본장 제2절 창조). 본 논문에서는 논문의 체제상 鳴鳳을 대상으로 한 '주인과의 비극적인 사랑'을 둘러서 다루었음.
7) 巴金 《家》: 《聰慧要在我們兩個裏挑一個……》, (《巴金小説全集》제4권, 臺北, 臺北出版社, 1993년) 131쪽.
8) 巴金 《春》: "鳴鳴太太陰險, 就數她的名多, 她折磨起來, 擔心她會被, 她罵人們, 嘴是下流的話都罵得出, 不過她不打人, 在人前, 她還會裝一副慈善相. 我的姐都是鳴鳴太爺打的. 他不但打人, 他還要咬人. 我從沒見過像他這樣的怪物! 他高興的時候, 就把你當成寶貝一樣, 還肯花
婉兒는 민씨 집에서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며 밤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몸도 점점 말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돌렸으며 차리러 일찍 죽어 다시 환생하길 원했다. 그래서婉兒는 '鳴鳳처럼 죽어버릴까'하는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수록婉兒의 마음속에는 점점 살려는 용기와 복수의 마음이 생겨서 기 시작했다. 그녀는覺慧의 사촌 여동생인淑英에게 말하기를:

그때 난 정말鳴鳳의 길을 가리고 했어. 지금은 나도 변했어. 기왕에 운명이라면 내가 왜 그들을 무서워해! 죽이야 마땅하면 죽고, 죽어서 안되면 살아나가야지. 그들 이 나를 괴롭혀도 난 상관없어. 나는 마음속으로 "난 질다고 생각해. 솔직이 아직 20세 도 안이었어. 난 절책에는 당신들보다 뒤에 죽을 거야. 난 당신들 하나 하나의 최후를 보게 될거야."라고 생각했다.9)

婉兒는 살려는 용기와 복수의 마음으로 '封建統治者'에 대항하며 친히 그들의 최 후를 보라고 하였다. 그녀의 이러한 의지는 그녀의 생활을 지탱해 주었으며 생명 을 유지시켜 주었다.婉兒와鳴鳳의 가장 큰 차이가는 바로 위와 같이 연약한 성격 에서 군세 성격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2) 주인에게 강姦 당한 헤어—喜兒

喜兒는高씨 집 五房의 하녀이다.《春》에서 克定은 그의 부인 沈씨가 시집을 때 데리고 온喜兒를 집탈하긴 그만 沈씨에게 들켜버렸다. 克定과 沈씨는 심하게 싸웠으며, 沈씨는 사건의 비밀을 가리기 위해 克明에게 가 사건의 전말을 고했으며,喜兒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둘라 방안의 한구석에서 슬퍼 울고만 있었다. 사실 당시 헤어인喜兒로서는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갈이 없었 다. 후에 克定은 형 克明에게 심한 구_Long을 들었으나, 부인 沈씨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를 들어喜兒를 첩으로 받아들였다.

封建地主家庭에서는 주인이 헤어를 처유해도 주인에게는 특별히 손해 될 일이

功率敎你讀書寫字。他發起火來，簡直不是人。是禽獸。亂打亂咬啥子事都做得出來。我脖子上的傷就是他拿鐵棍子打出來的！牙齒也是他咬出來的。有時候我真恨死他。不過恨也不中用。他們人多，老太監，老太太，老爺，太太，孫少哲……都是一鼻孔出氣的。我是孤零零的一個人，又無親無戚。(《巴金小說全集》第5卷，臺北，遠流出版，1993年)，89쪽.

9) 巴金，《春》：「那時候我真想走鳴鳳的路。現在我也變了。既然都是命，我何必怕他們！談死死，死死。」

10) 五房：高五人다섯째 아들, 즉 覺慧의 다섯째 속부 克定과 沈씨 내외.
없었다. 주인으로서는 만일 문제가 생기면 내 측으로 그만이고, 그렇지 않으면 첩으로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그러나 하나의 입장은 그렇겠하다. 만일 내쫓기면, 다른 지주 집에서도 그런 하나는 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 막막해 진다. 그래서 일단 주인에게 절유 당한 하나들은 자신을 점유한 주인에게 계속 의지하려고 한다. 희망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 기회를 벌어 몸을 그의 품안에 기대고 얼굴을 그의 가슴에 묻었다. 그리 고 애원하며 말하기를: "너리 저 좀 구해주세요! 마님이 너무 사나워요! 나리께서 잘 처리해 주세요!" 11

이런 상황하에서 주인이 점유했던 하나를 첩으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의 생활 정도는 비록 이전보다는 좋아지지만 여전히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그 하나는 명분 없이 생활을 하게되고, 이 명분없는 생활은 당시 일부일체의 사회와 가정에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된다.

3) 주인에게 버림받아 비참하게 죽는 하나—侍兒

侍兒는 高씨 집 (四房)의 하나이다. 巴全은 그녀가 병들어 고통받으며 사망하는 과정을 묘사하여 하나의 비참한 운명을 전개하였다.

《秋》에서侍兒는 병이 들어 먹이동안 밥도 못 먹고 있었으며, 의사가 왔었지만 별다른 효과도 없었다. 그녀의 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었으며, 몸도 계속 야위가졌다. 高씨 집에서侍兒는 주인의 눈에는 다른 하나와 마찬가지로 보통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봉건대지주 집의 하나들이 병이 났을 때 물론 유명한 의사가 아니지만 의사가 왔다면 하나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대접을 받은 것이다. 侍兒의 주인인 王씨는 일하기 싫어 꽃을 부리려는 것으로 여기고 그녀를 찾아가 보지도 않는다. 나중에 眞新이侍兒의 상황을 보고 王씨에게 유명한 의사를 청해오자고 건의하자, 王씨는 냉소하며 眞新에게 말하기를:

侍兒의 병은 별거 아나. 의사가 와서 뭐 уни가 먹칠 지나면 좋아질 거야. 내가 밥

11) 巴全《春》: 「地趋勢把身子算在他的懷裏, 把臉壓在他的胸前, 哀求地說: 「老爺救我! 太太凶得很! 師老爺給我作主!」」(《巴全小說全集》제5권, 臺北, 遠流出版社, 1993년, 143쪽.
12) 四房: 高孝인 내제아들, 즉 妃惠의 내제 속부 克安과 王씨 내외.
중에 이렇게까지 헤어져서 말할 필요는 없어! 훗어는 이미 약도 많이 먹었어, 내가 모를 줄 알아! ……설령 죽느냐 해도 내가 돈주고 사운 계침이야,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3)

주인의 눈에 하나인 훗어는 사람이 아니라 돈주고 사운 물건과도 같았다. 훗어는 이렇게 유명한 의사의 진료와 좋은 약도 한번 먹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갔다. 그러나, 자신의 하나인 훗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토씨는 더욱 심한 말을 한다.

제일중 하나 죽었다고 그렇게 크게 놀랄만한 가치가 있어? 하인 한 들만 빼서 거적으로 사 들어내 빨래에 보내 묻으면 되겠어.(4)

封建大家庭에서의 하인의 죽음은 주인에게 있어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물건을 잃어버린 것과도 같다. 주인은 돈을 들여 하인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그 돈으로 건강한 하인을 다시 사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토씨는 병든 훗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평생을 토씨 밑에서 시중들며 살아온 훗어, 주인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 했던 훗어는 결국 주인에게 버림받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다.

이처럼 사람들이 포기한 물건과도 같았던 훗어의 죽음을 당시 하녀들의 운명의 상징이었다. 巴金은 훗어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당시封建大家庭에서 하녀들이 당하는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었으며, 동시에封建地主階級의 질모된 행위와 사상을 폭로한 것이다.

2. 주인과의 비극적인 사랑

《激流三部曲》의 첫 작품《家》에서 鴨鴨은 16살의 하녀이다. 그녀는 취하고 총명하였으며, 이름답고 순절한 소녀이다. 그러나 그녀의 출신은 이와 반대로 아주 비참하다. 鴨鴨은 9세 때에 어머니를 잃고 눈이 많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 한 흙약한 중년 부인에게 붙잡혀 귀신집에 보내어져 종노릇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것은

13) 巴金《秋》: 「侍女不過一點小病，有個醫生給她看病，過幾天就會好的，也值得你深夜跑來告訴我！她已經吃過好幾副藥了，難道我就不曉得。……死了也是很花錢買來的丫頭，用不着你操心！」《巴金小說全集》제6권, 臺北, 遠流出版社, 1993년), 398쪽.
14) 巴金《秋》: 「死了一個丫頭，也值得大驚小怪的？喊兩個底下人用席子裹起抬出去，送給善堂去掩埋就是了。」《巴金小說全集》제6권, 臺北, 遠流出版社, 1993년), 414쪽.
그녀의 운명을 결정해버렸다. 그녀는 고씨집에서 왔사람의 명령에 복종해야 함은 물론이고, 매일매일 참اي 힘든 욕을 먹으며 고된 일을 해야 했다. 그녀는 속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만능의 모르는 것이 없는 신께서 정해놓은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이미 정해진 운명이겠지."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숙명론은 그녀의 신앙이 되어버렸고, 이렇게 생각해야 스스로도 약간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꾍은도 여타 젊은 소녀처럼 꿈의 날개를 펼쳐보도 있었다.

갑자기 한 젊은 남자의 얼굴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그녀를 천다보고 웃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누구인지 알았다. 그녀는 바로 마음이 열렸고, 한 줄기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주길 기대하였다. 그녀는 "아마 그가 그를 이한 행동으로부터 구해주겠지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점점 놀이 공중으로 올라갔으며, 한 순간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꾍으로 운동 먼저추상이인 지붕을 바라보고 있었다.

꾸은 꿈에서 계아나가 무착 아쉬웠다. 그녀는 확실히 아름다운 생활을 추구하는 강렬한 욕망과 강렬한 성격을 지닌 소녀였다. 그래서 이 꿈은 그녀로 하여금 더욱 더 우 السابع하고 자유스러운 생활과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갈망하게 하였다.

고씨집 첫째도령인 꾸은 어리고 비슷하지만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꾸은의 꾸은에 대단한 예정에는 동정으로 시작하나 시간이 지남수록 그녀를 하녀로 대우하지 않고 자신과 평등하게 대하며 사랑을 키워내었다. 꾰은은 꾰은을 구세주로 여기며 생활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를 생각하며 살아가겠다. 그녀는 평생 그를 봐라지하길 원했으며, 그의 옆에만 있을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마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꾰은도 그녀에게 결혼까지 이야기하고 본인 스스로도 수 차례 다짐하였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남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 개법소회의 '등급제도'는 결코 그들이 결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뒤어 꾰은에게 제단이 찾아왔다. 고씨 집의 최고 통치자인 고영감이 꾰은을 그의 친구인 꾰은에게 첩으로 준다는 것이었다. 당시 개법大家庭의 통치자들은 하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자신들

15) 巴金 《家》: 「世間的一切都是由個無知的無所不知的神明安排好了的。自己到這個地步，也是命中注定的。」(《巴金小說全集》第4卷，臺北，遠流出版，1993年，200쪽).
16) 巴金 《家》: 「忽然一個年輕男人的面貌在她眼前出現了。他似乎在望着她笑。她明白他是誰。她的心靈馬上開花了。一種希望溫暖了她的心。她靜靜地向他伸手。她想也許他會把她從這種生活裏拯救出來。但是張臉卻漸漸地向空中升上去。意態愈高，一下子就見不到了。她帶著夢幻的眼睛望着那個滿是灰塵的屋頂。」(《巴金小說全集》第4卷，臺北，遠流出版，1993年，222쪽).
의 소유물인양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거나 받거나 하였다. 이 소식은 鳴鳳의 아름다운 룬과 환상을 띠어تي웠다. 鳴鳳은 覺慧의 어머니 周씨에게 매도해도 해보았지만 누구도 高영각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鳴鳳은 마지막으로 覺慧에게 구원을 청하려고 그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녀는 覺慧가 책상에서 바삐 원고 쓰는 것을 본 순간, 그를 방해선 안된다는 생각이 떠올랐고 자신 때문에 覺慧의 앞날을 희생할 순 없다고 생각했다. 鳴鳳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자 호수에 몸을 던져 "죽어서 깨끗한 몸이라도 남겨라" ①7)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이렇게 한 젊은 소녀의 생명은 '封建統治者'에 의해 사라져갔다.

鳴鳳의 자살에 대해서는 몇몇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죽음으로써 극약무도한 제도에 대한 비난의 항의를 했다."⑧라는 견해이고, 둘째는, "그녀는 우선 운명을 받아들여 죽기로 결심했고, 다음은 鳴鳳에게는 사망을 위해 몸을 바쳐 절개를 지키고 사망을 위한 희생정신이 있었기에⑨ 자살을 했다는 견해이다. 이 두 견해는 각각 그 근거가 있어 전자가 옳거나 후자가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작품 속 鳴鳳 개인의 사상을 바쳐 후자의 견해가 전자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鳴鳳은 비록 반항의 심리가 있었지만 그녀가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覺慧에 대한 사랑 때문이지 반항하기 위한 자살은 아니었다. 鳴鳳은 覺慧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가 도와주기를 바라 마지막으로 覺慧를 찾아갔지만, 覺慧가 그녀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鳴鳳은 覺慧의 방에서 나오면서 이번엔 정벌 조급의 희망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사랑하였으며, 또한 그도 지금 이전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사랑을 놓치고 무서운 영항한테 가야 한다. 그녀는 영원히 그를 다시 볼 수 없다. 이후의 길고 긴 세월은 끝없는 혼란이 다. 이 사랑도 없는 세상이 뭐가 서 있을까? 그녀는 마음에 결심하였다.

그녀는 완전히 이해하였다. 그는 그녀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없다. 영원히 밤이 그들 곁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다. 그는 다른 환경에 속해있는 사람이, 그는 그의 전도가 있고, 그의 사업이 있다. 그녀는 그를 볼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으며, 영원히

①7) 巴金《家》: 「死了也落得一個清白的身子。」(《巴金小說全集》第4권, 228쪽, 臺北 達流出版社, 1993년)
⑧) 曼生《重讀巴金的〈家〉》: 「以死表示對萬惡制度的悲憤抗議。」(《巴金專集》第2권, 517쪽, 江蘇人民出版社, 1982년. 原載 《光明日報》, 1980年 1月 16日)
⑨) 張明簡《滿鳴鳳之死》: 「她認命。所以她決心一死。其次, 是因爲她有為愛情“身殉”和“自我犧牲”的精神。」(《山西師院學報》 1980年 3期, 75쪽)
그녀 열에 넣을 수 없다. 그녀는 마냥히 그를 포기해야 한다. 그의 존재는 그녀의 존재보다 중요하다. 그녀는 그에게 그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그녀를 구해달라고 할 수 없다. 그녀는 마냥히 가난하다. 그의 생활 안에서 그녀는 영원히 가난하다. 그녀는 이 폭격 생각하며 마지막 결심을 하였다. 20)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도록 鴛鴦은 覺憐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살을 결심한 것이 다. '그의 존재가 그녀의 존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한 것이다. 鴛鴦은 覺憐가 대상하기 바랐기에 비참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호수에 몸을 던진 것이다.

바순은 鴛鴦의 처지에 대해 깊은 동정을 표하였다. 바순은 슬프고 분한 마음으로 죽기 전 鴛鴦의 심리상태를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호수가 ……그녀는 그 곳에 지나간 많은 일을 회상하며 망연해져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짓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살아있고 그녀만이 죽으려 한다. 과거 17년 동안 그녀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육락되는 것, 눈물, 시중인것, 그리고 바로 그녀가 지금 몸을 바치려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다른 소녀와 마찬가지로 예전 멸록이 있 고, 총명한 마음이 있으며, 피와 삶이 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다. 왜 사람들이 그녀만 유린하고 상해하는가? 왜 그녀를 미따한 눈빛을 주지 않고, 동정의 마음을 주지 않으며, 심지어는 왜 아무도 그녀를 위해 연인의 털을 토하지 않는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이렇게 젊은 그녀는 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가? ……그녀의 마음속에는 토로할 곳이 없는 숨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21)
라고 해도, 즉기전 흑백의 회상과 그림에 대한 백골이의 묘사는 흑백을 대신하는 역할을 토로한 것이며, 쌍사가에서 안타깝게 흙생된 허먼들의 욕분을 대신 토로한 것이다. 결국 백골은 흑백이라는 인물형상을 통하여 ‘쌍사 등급제도’의 폐단을 강력히 비판한 것이다.

3. 주인과의 정식 결합

《激流三部曲》의 마지막 작품인 《秋》에서는 주인과 허먼이 정식으로 결혼하는 색다른 상황이 전개된다. 《秋》의 서두에 唐新이의 재혼문제가 제기되는데, 특히 그의 모친 周氏는 唐新이 모습이라도 빠리 재혼할 것을 바랬다. 그러나 唐新은 죽은 처 瑞環과 두 아이를 생각하며 차마 재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

高씨 집 三房의 허먼인 瑞環은 평소 唐新에게 간은 관심을 보였다. 아마 瑞環의 눈에는 唐新이 제일 선량하고 그가 만난 불행이 제일 충정을 살만하여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唐新은 한 소녀가 그의 불행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고, 목숨에 그를 위해 충복의 기도를 하고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물의 관계는 주인과 허먼의 관계로 정식 결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瑞環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瑞環 자신도 唐新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였다. 唐新의 주인인 周氏는 이를 눈치채고 그녀를 불러 唐新에게 시절가없이 원하는지 묻었다. 허먼인 瑞環이 주인 唐新과 정식으로 결합한다는 것은 당시 쌍사가에서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瑞環으로서는 원하는 바였기에 바로 승낙하였다.

《秋》의 말미에 高씨 가정이 해산된 뒤 唐新은 瑞環을 정식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唐新은 그의 동생 藤英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瑞環의 일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난 그녀를 아주 좋아해. 그녀도 나한테 아주 잔하고, 난 그녀에게 잘 해준 거야.
어머니가 하는 흔한 천성이, 난 그녀를 이전의 형식처럼 대하고 있어. 절대 다시 결혼하지 않은 줄을 알 거야. 이전에 사람들이 나에게 재혼하고라고 권했어. 지금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안될 것도 없지. ...그녀는 나의 유일한 유일한 유일한 조수야. 그녀는 어머니, 세세 동생 그리고 쌍사하고도 잘 지고, 둘째 唐新도 그녀에게 아주 잔해. 그리고 그녀를 창렬할 정도야. 장례가 돌아오면 너도 그녀를 좋아하고 형수로 대하리라 믿어. 22)
《秋》의 말미에는 封建大家庭의 高씨 가정이 점점 붕괴되고 급기야는 해산된 다. 이런 와중에 覚新이 翠環을 체이 아니라 정식 부인으로 받아들인 일은 그 의 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전의 高씨 가정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이다. 과거 주인과 하녀의 관계였던 覚新과 翠環이 현재에는 평등한 신분으로서 새 가정을 이룬 것은, 封建大家庭의 高씨 가정이 물라지고 새로운 高씨 가정이 탄 생했다고 할 수 있다.

Ⅲ. 結語

《激流三部曲》은 중국 5·4운동 이후 20년대 초기(1920~1923)의 四川 成都 를 배경으로 풍자해 가는 한 封建大家庭의 슬픈 역사를 묘사한 작품이다. 巴金은 풍자해 가는 封建大家庭의 역사를 통해 당시 封建制度의 불합리성과 封建地主階級의 부패한 생활을 심도있게 비판하였다. 그 중에서도 封建大家庭에 살고있는 하녀 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 무한한 동정을 표하였다.

《激流三部曲》에서 묘사된 하녀들은 그녀들의 삶이 아주 다양하다. 그녀들은 불견 취급 받거나 강출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버림받아 비참하게 죽는 하녀도 있다. 그런가 하면 주인과 비극적인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또한 주인과 정식으로 결혼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세 가지 유형에는 각각 서로 다른 작자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할 수 있다.

처음 비참한 삶과 죽음을 맞이한 하녀의 유형에는, 封建大家庭하에서 하녀들이 받는 고생과 수모를 묘사하여 封建等級制度를 비판하는 의미가 숨어있고: 둘째 주 인과의 비극적인 사랑을 나누는 유형에는, 하녀 鳴鳳이 주인 高鴻芸의 말을 거역 하고 자살함으로서 封建等級制度에 대한 강한 반항이 표출되어 있으며: 셋째 주인 과 정식으로 결합하는 유형은, 封建大家庭 및 封建等級制度가 물라지고 세시대의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2) 巴金 《秋》: 「我很喜歡她，她對我也很好，我不會待她不好的。……她是個好女子，我待她也就對 待過去的嫂嫂一樣。我決不另外續弦，從前大家都勸我續弦，現在我還一個我喜歡的人，又有什麼 不可。……她是我唯一的安慰，她也是我一個得力的幫手。她同媽、同三妹、同琴妹都合得來，二 弟對她也不錯，連姑母也稱讚過她。我相信将来三弟回家時，也會喜歡她，把她當做嫂嫂看待的。」(《巴金小說全集》제6권, 臺北, 達流出版社, 1993년), 567쪽.
【參考文獻】

巴金《巴金小說全集》十二卷 台北，遠流出版公司，1993
《巴金選集》十卷 成都，四川人民出版社，1982
《巴金隨想錄》 容昰，三聯書店，1988
《序跋集》 廣州，花城出版社，1982
《創作回憶錄》 容昰，三聯書店，1981

汪應果《巴金論》 上海，上海文藝出版社，1985
唐金海，張曉雲《巴金年譜》 成都，四川文藝出版社，1989
徐開壇《巴金傳》 上海，上海文藝出版社，1991
《巴金傳》（續卷） 上海，上海文藝出版社，1994

劉巨才《中國近代婦女運動史》 北京，中國婦女出版社，1989
唐弢《中國現代文學史》 北京，人民文學出版社，1992
周策縱《五四運動史》 台北，桂冠圖書公司，1989
金仁植《巴金激流三部曲研究》 中國文化大學中國文學研究所 博士論文，1995.6

田惠蘭《封建宗法制度的控訴書—談巴金的＜家＞》：《華中師範學報》1973年 3期
牟書芳《論巴金小說關於婦女問題的描寫》：《遼寧師範大學報》1984年 第5期
《論巴金小說中的家庭倫理觀》：《東岳論叢》1989年 第5期
宋賢邦《封建宗法制度的血淚控訴書》：《廣西師院學報》1979年 第3期
張明健《談鳴鳳之死》：《山西師院學報》1980年 第3期

【中文提要】

巴金從小就愛和所謂‘下人’在一起，他是在‘下人’中間長大的。在鴉片煙灰旁邊他聽過不少從鴉片、麻疹的口中講出來的故事。在一輩子沒有知識、缺乏教養的人中間他得到了他的生活態度，也得到了近於原始的正義的信仰和直爽的性格。在這時候，巴金宣誓了要做一個站在他們這一邊，幫助他們的人。巴金出身於封建大家庭，他對於封建等級制度的強勢有十分深刻的體驗和了解。巴金的許多作品裏，把這種思想表現得最深刻的就是《激流三部曲》。

《激流三部曲》以五四運動後二十年代初期(1920年～1923年)的四川成都為背景，描寫了一個正在沒落崩潰中的封建大家庭的全部悲劇離合的歷史。巴金通過一個正在沒落崩潰中的封建大家庭的歷史，極力攻擊了吃人的封建制度和黑暗社會，深刻地暴露了封建地主官僚的腐敗生活。尤其，對在這封建制度之下的婢女所遭受的壓制和痛苦，寄予無限的同情。
《激流三部曲》高氏家庭裏的婢女，可分為三種類型。其一，是悲慘的生活及死亡；其二，是和主人悲哀的愛情；其三，是和主人正式結合。巴金通過這三種類型的婢女，強烈地表露出對於封建等級制度的控訴和反抗以及封建大家庭和封建等級制度的沒落與崩潰。

【主題語】

封建大家庭 封建等級制度 萬人 萬人